찬바람에 낙엽이 시들한데 옛 친구 돌아오니 기쁘구나!

양기사 ②

중국불교의 중흥조 허운 대사의 4대 제자 중 한 사람인 혜광 방장 스님.

순례자 일행은 어둑한 대웅보전에 들어 〈반야심경〉을 독송한 뒤 경내를 돌아본다. 양기사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경내에는 보통선사(普通禪寺)라는 편액이 붙어 있다. 보통사의 처음 이름은 광리선사(廣利禪寺)였고, 당보(唐寶) 12년(753)에 승광(乘廣) 선사가 개창했다고 한다. 뒤에 견숙(甄叔) 선사가 법을 이어받아 당나라 대력(大歷) 연간(776~779)에 새로 법당을 개설하니 대중이 모이고 규모가 커졌으며, 송나라 경력(慶歷) 연간(1041~1048)에 방회 선사가 사찰 이름을 보통사라고 개명하였는데, 차츰 선사의 법이 천하에 드러나자 선사가 말년에 장사 운개산 해회사(海會寺)로 법좌를 옮겼을 때는 찾아와 머문 비구, 비구니만도 수백 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청대 말의 건물로 보이는 조당에는 달마 대사 좌우로 자명 선사(석상초원)와 방회 선사의 초상이 모셔져 있다. 수불 스님이 방회 선사를 한 동안 보시더니 말씀하신다.

"여기 오니 예전에 한 번 살던 도량인 것 같습니다. 뒷산 앞산 꽉 막혀 물이 빠져나가는 개울이 없는 곳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이곳의 지형이 낯익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방회 스님을 보세요. 얼굴이 조금 특이한 형상입니다. 이마가 많이 벗겨졌고 수염이 난 모습이 그래요. 누가 보지도 않을 거니까 수염 깎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런 산중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선방 스님 네들이 몇 분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이지 많은 대중이 살기에는 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운이 일당백으로 살 수 있는 도량인 것 같습니다."

백장의 대기와 황벽의 대용 모두 얻은 자 방회 스님 뿐

방회 선사의 원만한 상(相)을 보니 과연 바다와 같은 넓이와 산과 같은 기상이 느껴진다. 방회 선사의 어록 서문을 쓴 문정(文政) 선사의 평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마조 대사가 강서 땅 늑담사에 살면서 문도 84명을 배출하였다. 그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이로서 오직 백장 회해 스님 한 분이 대기(大機)를 얻고, 회해 스님이 배출한 황벽 희운 스님이 대용(大用)을 얻었을 뿐, 그 나머지는 남의 말이나 따라 읊어대는 사람들이었다. 방회 스님은 처음 원주 땅 양기산에 살다가 뒤에 장사 땅 운개산(雲開山)에 머물렀는데, 당시에 말하기를 회해 스님은 대기를 얻었고 희운 스님은 대용을 얻었지만 둘 다 얻은 자는 방회 스님 뿐일 것이라고 하였다.'

방회 선사의 수법제자인 백운 수단 스님의 요청으로 쓴 서문이니 사실적이고, 당시 식자들 사이에 도는 평을 그대로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장 선사의 대기와 황벽 선사의 대용을 다 얻은 분이라고 하니 얼마나 위대한 선사인지 나도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수불 스님은 양기사 대중을 만날 때마다 각별하게 대한다. 특히 종무소에서 지객스님 안내로 방장스님을 뵙고는 좋아하신다. 그러나 방장스님은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사래를 친다.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것을 보니 기개가 있어 보인다. 옷차림도 두타행을 하는 선승답게 겨울이 지나갔는데도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다. 잠시 반갑게 서로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 법거량이라면 법거량이다. 수불 스님이 오랜 도반을 만난 것처럼 바싹 가까이 다가앉으려 하자 노스님이 일어서 나가버린다. 그래도 수불 스님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할 뿐 미소를 짓는다.

"짧은 만남이지만 인연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스님이라고 느껴져서 좋아요. 여신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사진 같은 것을 찍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보니, 당당함이 엿보여 싫지 않습니다. 지객이 상좌스님인 모양인데 노스님이 원래 괴팍하다고 그래요."

보통사 소개 책자를 보니 혜통(慧通) 노화상이다. 책자에 나온 노화상의 이력을 그대로 옮겨본다.

1927년 하북 탁록(涿鹿)에서 출생하여 1943년 출가했다. 1944년 강소 보화산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뒤에 북경 미륵원의 진공(眞空) 노화상을 시봉했다. 광제사의 원영(圓瑛) 법사에게 〈능엄경〉을 듣고, 양주 고민사(高旻寺) 내과(來果) 노 선사를 시봉했고, 오대산 능해(能海) 상사(上師)에게 〈사분율〉을 배웠다. 18세에 금산선당(金山禪堂)에 들어갔고, 뒤에 운거산으로 들어가 허운 노화상을 모셨다.

노화상은 1959년 허운 선사가 입적하자 유지에 따라 일성(一誠) 노화상 등 4명이 운거산을 지켰다. 10년 동안의 문화혁명 기간에도 하산하지 않고 어렵게 선좌(禪坐)했고, 이후 노화상은 조사가 남긴 선당의 혜명향(慧命香)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총림선당과 운거 진여사를 진흥시켰고 서안의 와룡선당에서 종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노화상은 현재 심천의 홍복사, 복건의 지제산 화엄사의 좌원화상(座元和尙)이자, 광동 광효사와 남화사, 운문사와 대웅사 단하산 별전사, 강서 운거산 진여 선사와 장안 보봉 선사, 서안 와룡사 하남 숭산 소림사 산서 오대산 현통사와 벽산사와 보화사, 절강 아육왕사의 수좌화상(首座和尙)이다. 2010년 2월, 노화상은 보통사의 조사를 향해 예를 드리며 조정이 쇠락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방정부와 단월(檀越) 거사는 노화상에게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시 조정을 회복시킬 것을 청했다. 이에 노화상이 흔쾌하게 승낙하여 마침내 조정이 중건되고 승려들이 불법을 있게 되었다.

18세 이전에는 경을 두루 보았고, 이후에는 평생 참선을 한 전형적인 선승이다. 굳이 노화상이 거쳐 온 절들을 다 소개한 까닭은 평생 운수납자로 정진한 스님의 이력이 경이로워서이다. 시절인연이 참으로 묘하다. 오전에 '보통사 중흥계획'에 따라 개토식 즉 첫 삽을 뜬 모양이다. 노화상이 괴팍한 줄만 알았는데 쇠락한 양기사를 참배하고 눈물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 가슴속에 봄바람을 숨기고 사는 선승 같다. 수불 스님이 즉석에서 시주를 한다(다음날 또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양기사로 가 거금을 시주했다).

"선당을 짓겠다고 개토식을 하는 날 왔다 가는 것이 좋은 인연 같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결국 왔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여기를 밟은 인연으로 신심이 조금 더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객스님이 예물로 죽비를 하나 들고 나온다. 우리 것처럼 대나무로 만든 죽비가 아니라 밥주걱처럼 생긴 중국식 죽비다. 죽비에 경책(警策)이라고 쓰여 있다. 수불 스님이 죽비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신다. 마치 천 년 전에 양기사 선당에서 죽비를 든 수좌스님 같다.

경내 오른편에는 당백(唐柏)이라는 고목이 된 측백나무 한 그루가 있다. 한 가지가 처져 땅에 닿을 듯하다. 선객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견숙 선사가 양기사에 도착했을 때 심은 나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도재백(到栽柏)이라고도 부른단다. 견숙 선사가 입적할 때 이 측백나무를 소재로 게송을 읊조렸는데 다음과 같다.

나뭇가지가 땅에 닿으면
나는 마땅히 다시 돌아오리.
樹枝垂地 我當重來

자명 선사와 그 제자인 방회 선사의 진영이 봉안된 조당.

양기산 거처 지붕과 벽 엉성하니 방바닥 가득 뿌려진 눈의 구슬!

대웅보전 벽에는 당나라 때 만든 비(碑)가 두 개나 박혀 있다. 우리 경우는 밖에 비를 세우는데 중국은 다르다. 벽에 박힌 비를 여러 고찰에서 본 것이다. 법당 벽 왼쪽은 당 원화 2년(807)에 문장가 유우석이 글을 짓고 쓴 개산조 〈승광 선사비〉이고, 오른쪽 벽은 왕관이 당 태화 6년(832)에 지은 〈견숙 선사비〉다. 그러고 보니 절 왼쪽에 조성된 두 기의 묘탑들은 승광 선사와 견숙 선사가 주인공일 것 같다. 지객스님에게 물어보니 방회 선사 묘탑은 선사가 입적한 운개산 해회사에 있다고 하며 양기사 복원불사가 끝나면 이운할 것이라고 한다.

승광 선사와 견숙 선사의 묘탑이 규모가 큰 것은 당시 그분들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 같다. 실제로 개창조인 승광 선사는 남종을 중국선종의 정통으로 자리 잡게 한 하택 신회(670-762)의 법제자라고 한다. 이곳에서 승광 선사와 견숙 선사가 각각 40년씩 주석하고 난 뒤 방회 선사가 입산하여 양기종을 열었던 것을 보면 그분들의 공덕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방회 선사가 왔을 때는 이미 선당이나 법당이 허물어져 있었던 것 같다.

방회 선사의 상당법문을 보면 고즈넉한 절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중도 십여 명 정도인 듯하고 선사의 설법은 게송 한 수를 읊조리듯 짧다.

박복하게도 양기산에 머문 뒤
해마다 기력이 쇠약해 간다.
찬바람에 낙엽은 시들한데
그래도 옛 친구 돌아오니 기쁘구나!
랄랄라
불 꺼진 나무토막 끄집어내
연기 나지 않는 불에다 던진다.

이것이 방회 스님의 상당법문이다. 출가 전 붓과 먹을 싫어했다는데 어찌 이런 절창을 읊조리는지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의 〈법구경〉도 시이고, 방회 선사의 상당법문도 시다.

가을비가 가을 숲을 씻으니
가을 숲이 온통 비취빛이구나
슬프다. 부대사(傅大士)여
어느 곳에서 미륵을 찾느냐.

성철 스님이 팔공산 성전암에 계실 때 늘 암송하던 게송도 다음과 같은 방회 선사의 상당법문이었다. 선사의 상당법문은 돌아가신 이원섭 시인이 깨달음의 노래로 소개한 바 있다.

양기산 임시거처 지붕과 벽 엉성하니
방바닥 가득 뿌려진 눈의 구슬!
그러나 목 움츠리어 가만히 찬탄하며
생각노니, 나무 밑에 거처하신 옛 어른 일.

楊岐乍住屋壁疎 滿床盡撒雪珍珠
縮却頂暗嗟噓 飜憶古人樹下居

나무 아래서 두타 정진하신 부처님을 생각하면 비록 지붕과 벽이 허물어진 방이라도 고마워해야 하고, 방바닥에 뿌려진 흰 눈을 오히려 영롱한 진주로 봐야 한다는 가난한 선승의 법도를 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는 산방도 한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칠 때면 툇마루에 눈이 가득 쌓이는데, 투명한 외로움에 진저리치면서도 그것을 보는 기쁨이란! 눈을 보석으로 본 방회 선사의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본 것 같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Lumbini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